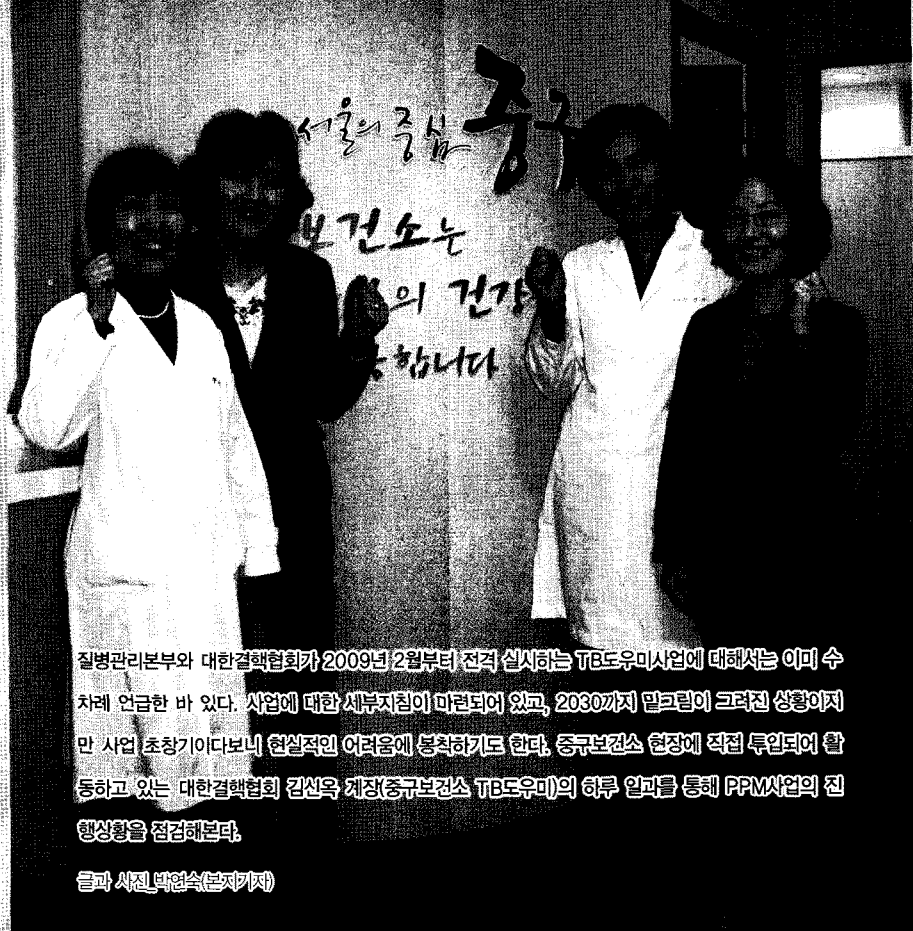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 중구보건소, 국립보건원이 함께하는 PPM 현장을 가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2009년 2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TB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30까지 밀크림이 크러진 상황이지 만 사업 초창기이다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중구보건소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활 동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 김신옥 계장(중구보건소 TB도우미)의 하루 일과를 통해 PPM사업의 진 행상황을 점검해보자.

글과 사진_박영숙(본지기자)

(양재역) 중구보건소 TB도우미 김신옥 님, 결핵실 전경아, 서해경, 임명희 선생님.

● 중구보건소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무학동에 위치한 중구보건소는 아침부터 밀려드는 민원으로 바쁜 하루를 맞고 있었다. 2층에 위치한 결핵실

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주도하는 PPM 사업 및 서울 중구지역 결핵관리 근거지이자, TB도우미 김신옥 계장의 일과가 시작되는 곳이다.

결핵실 임명희 선생님과 전경아 선생님께서부터 중구지역 결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신환 46명, 재발자 18명, 중단 후 재등록 9명, 전입 3명, 예방화학 3명과 요관찰환자 61명의 결핵환자를 중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중구의 경우 관할지역에 남대문 쪽방이 속해 있어 노숙인 결핵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증가하는 노숙인의 결핵 및 보건 문제는 중구보건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고.

중구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아 선생님은 예전에는 결핵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고 한다. “보건증을 받으러 왔다가 뜻밖에 결핵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상황에서 자신이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죠. 꾸준한 복용만이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개개인의 복용상황까지 관리하기엔 역부족이죠. 대만에서는 복용장면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복용을 확인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요.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복용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PPM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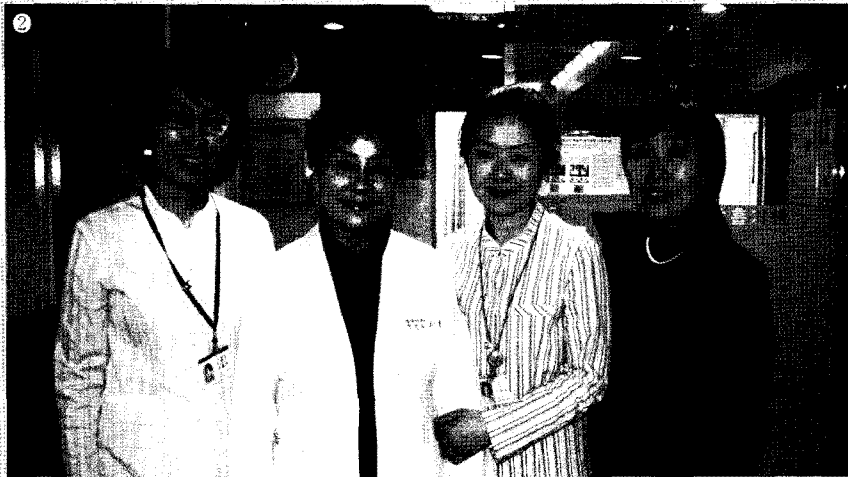
TB도우미들의 중요한 임무가 환자들이 제때 복용하고 있는지, 제때 병원을 찾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올바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환자의 의지만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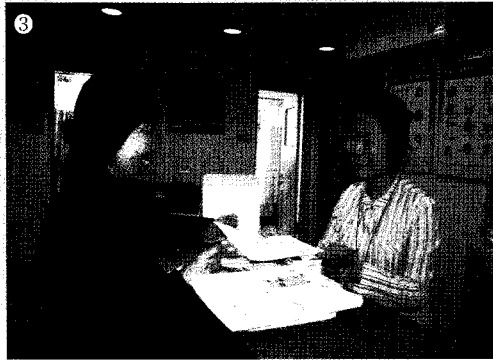
김신옥 계장은 중구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결핵환자가 있는 88곳 정도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TB도우미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환자들에게 'TB도우미의 도움을 받겠다'는 환자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공문을 발송하고 병의원 담당자들과 통화하고 면담 일정을 잡고, 환자동의서를 받고, 추구관리 시작까지 2월 한 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날은 중구보건소 관할지역에서 제일 많은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담당자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다. 약속시간에 맞춰 국립의료원 담당자를 찾았다. 국립의료원은 1958년 설립된 국립병원으로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들의 치료와 의료인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신옥 계장은 호흡기센터 담당자와 이미 여러 차례 PPM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늘은 명함과 함께 환자동의서를 건네주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담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였다. 앞서 건넨 환자동의서에 환자가 사인을 하면 TB도우미가 환자들과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구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장 조동일 선생님은 "병원의 업무상 간호사들이 일일이 환자의 복약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니 우리로서도 너무 좋은 일이지요. TB도우미



-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 감염관리실 관계자와 함께. 왼쪽부터 감염관리실 김효명 간호사, 조동일 호흡기센터장, 강준해 간호사, 김신옥 계장.
-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 강준해 간호사와 앞으로의 업무 협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들의 역할이 우리나라 결핵퇴치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네요.”라며 PPM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염관리실의 김효명 간호사는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호흡기센터를 통해 치료받고 있지만 장결핵 등 그밖의 결핵환자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연락망에 공문을 띄워놓았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국립의료원 방문은 무척 성공적이었다. 조동일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장은 대한결핵협회와 정부의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인 만큼 순조롭게 협조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담당 간호사, 감염관리실의 협조 역시 순조로웠다.

김신옥 계장은 앞으로 오늘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 중구보건소 관할 병의원을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이와 같은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결핵정책에 대해, TB도우미사업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과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TB도우미사업이 첫발을 내딛은 지 이제 갓 한 달,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금은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2030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